

결단

사도행전 27:24

류광수 목사님

임마누엘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30년 전에 시작할 때 붙잡은 언약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한 결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결단하는데,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단해야 한다. 1987년 10월, 내가 영도에 와서 첫 번째 증거한 메시지다. 그때는 제목을 ‘난파선의 교훈’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전체 결단했는데, 이 운동이 30년 지나면서 전 세계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새해가 또 시작되는데,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서울에서 요청해서 7시에 시작했는데, 잘 된 것 같다. 괜히 11시 55분을 기다려서 눈 깜짝거리 가면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언약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시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서론 : 위기

(1) 자,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이, 이것은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받은 메시지다. 어느 정도 위기가 왔는가 하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받은 편박은 말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조직력을 가진 민족이 유대인이다.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펴박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문화가 발달된 마케도나가 복음 막는 데 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가 또 복음 막는 데 앞장선 것이다. 그러던 중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앞친데 덮친 격이다. 배를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언약이 어디 있는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는 것은, 가이사를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너의 고백, 그 복음을 가이사 앞에 가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바울이 알아들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했던 이야기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 만난 것에 대해 고백한 것이다. ‘그는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고 꼭 이야기한 것이다. 바울은 굉장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 그때 총독이 재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때 바울이 대답했다. “각하께서도, 제가 묵인 것 외에는 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저게 영감이 있구나.”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편박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다.

(2) 무슨 말인가? 여러분, 지금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자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본론 :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위기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말이다. 왜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엄청난 답을 위기 속에, 죽음 속에 준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뭐라는 말인가? 우리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야 한다.

1. 답을 확인하는 날

“네가 받은 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중요하다. 우리는 위기 만났을 때 언제든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무슨 답인지를 보라.

(1) 사도행전 9:1-10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9:15에 바울을 보고, “여러 나라와 임금들과 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 세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질문하니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 “많은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그 답을 확인하려 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이다.

(2) 사도행전 11:25-26에 보면, 바나바를 만난 것이다. 바나바를 만나서 마가다락방과 감람산에서 어떤 미션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 바울에게 전달된다. 이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바울을 제자훈련시켰다.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닌가? 마가다락방의 일을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다. 이 속에는 굉장한 것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정확한 것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3)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7:1-9에 보면, 바울을 아예 죽이려고 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한 팀도 만들었다. 여기에서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때도 죽지 않았던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서 답을 전달할 시간표가 온 것이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작각들이 온다. 의학적으로 증거되었다.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염

려하고 할 때 뇌세포가 엄청나게 깨진다. 자동적으로 깨진다. 육신적으로도 살 길이 없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잘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확실히 하고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기 아니다. 하필이면 풍랑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별 팀들이 구성되었다. 못 죽였다. 바울을 죽일 수 없었다.

(4) 결국 무엇인가?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서 16:20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 답을 확인하는 날이다. 여러분, 문제 오면 언약을 딱 잡으라.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날이다. 틀림없다. 역사가 증거했다. 성경이 증거했고 교회사가 증거했다. 우리가 30년을 지나오면서 증거를 봤다. 그러니까 유달리 작년, 올해에는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실력있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무 많다. 숨겨져 있는 좋은 중직자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우리 부산의 중직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준비하신 분들이다. 아예 아멘도 안 한다. (웃음)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 너무 답을 가졌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실수했다. 서울 당회에서 보고했다. RUTC현금을 제일 많이 한 것이 부산이 아니고 임마누엘서울교회라고 했다. 모이는 것도 제일 많고 헌금도 제일 많고 했다. 임마누엘부산은 2위였다. 그러니까 황상배 목사님이, “에이, 또 가시는 테마 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도 칭찬을 틀리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우리는 확인했다. 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임할 능력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는가, 풍랑을.

2.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

두 번째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최고의 기회를 보는 날이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언제든지 생각하라. 그 답을 확인하는 날이고,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1) 우상의 종노릇하던 우상 시대를 마치고 바울이 한 말이다(행19:21).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 많은 교권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앞에서 법정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행23:11).”

(3) 풍랑시대를 만났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행27:24).” 확실하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억지로 용기 낼 필요는 없다. 답을 가지고 있고, 그게 시간표이며 기회다.

3.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

하나님이 직접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기회만 주어진 게 아니다. 바로 최고의 응답을 찾는 날이다. 여러분, 요셉이 바보처럼 참은 게 아니다. 최고의 응답을 찾는 것이다. 바울이 힘이 없어서 피했다던 것이 아니다. 똑같다. 이것을 잡은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다. 다윗이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다윗에게는 전부 기회였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응답을 찾는 날이었다. 어떤 응답 말인가? 바울이 고백했다.

(1)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다(롬16:25).”

(2) 로마서 16:27에는 이렇게 말했다.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3) 로마서 16:26에는, “그게 이제 나타났신 바 되었다.”

바울은 감동이 되어서 충격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로마에 보낸 편지다. 엄청난 편박 속에 있는 로마에 보낸 편지다. 위기 아니다. 불신자에게는 위기다.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니다. 그렇지 않나. 확실히 하라.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위기가. 여러분에게는 위기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날이요, 기회를 찾는 날이요, 응답을 찾는 날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나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본 것이다. 14일 동안 풍랑이 몰아치는데, 비오고 풍랑이 친 것이다. 여러분, 그냥 광풍이 불면 되는데, 비가 오고 광풍이 불면 안 보인다. 너무 위기를 만나니까, 이제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다. 배가 가라앉을 때 아닌가. 아무 희망이 없다. 거기에는 울리오의 계급장도 필요가 없다. 선주가 같이 탔는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해결책이 없다.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선장이 탔어도 별 수 없다. 그게 재앙이다. 그때 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대단한 언약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것을 찾으면 중요한 응답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어려움 올 때마다 이것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찾는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찾는데,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결론 : 결단

그러면 여러분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단이 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1) 첫째다. 오늘 이후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라. 금방 응답 오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흑암이 그때 무너진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 내 버렸다. 누가 아는가? 사단이 더 잘 안다. ‘아,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답 낸 사람이야.’ 절대 못 건드린다. 사단이 안다. ‘답 안 낸 인간이야.’ 다 알고 건드리는 것이다.

바울이 완전 담 내 버렸다. 어느 정도 답을 냈나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다. “배설물.” 이 정도면 완전히 담 내 것이다. 나는 램넌트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은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진짜 성공한다. 그런 정도는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 경제 움직인다. 그런 인물, 그런 정치인들이 안 나오니까 세계는 자꾸 어려운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완전히 담 내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어떤 문제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그리스도로 답 내 버렸다. 그리스도로 답 내지 않으면,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로 답 내지 않은 자를 사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은 그 어떤 조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꿇는 것이다. 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결단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응답이 오는가? 다윗은 고백하기를,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졌다. 여러분, 아는 것이라고 듣지 말고, 진짜 꿈꿈이 보셔야 한다.

내가 전도운동을 30년, 개인적으로는 40년 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전도운동을 실패 하다가 자기 이익, 손해 걸리면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 너무 많았다. 충격이 되더라.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그것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었다. 부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전도운동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다. 주제가 성령충만이다. 내가 집회하는 데마다 2차 집회를 했다.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충만 받아야 한다고 이 좋은 복음을 많은 사람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래서 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전국에 파는데 이게 엄청 팔리는 모양이었다. 다 가지고 간 것이다. 회한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가지고 가는 줄도 몰랐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강호인 목사가 발견해서, 가져간다는 것이다. (웃음) 진짜 강호인이 눈 밝다. (웃음) 가져간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다 가져간다. 그래서 불렀다. “사람들이 현금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가면 안 되지.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 모아서 선교하고,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전도자를 도와주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가면 되냐.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만둬라.” 그때부터 사람이 싹 달라져 버렸다. 내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이다. 기가 차서. 한번 호텔 로비에서 만났다. 나한테 오더니 큰절을 하는 것이다. “야, 바쁘다며?” “아, 아닙니다.” “응, 건강 조심해.” 나는 농담처럼 이야기 했는데, 딱 1년 만에 죽어 버리더라.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서울에 올라갔더니 또 어떤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들은 오직 사명이었다. 이래 가지고는 다 가지고 가는 것이다. 야, 회한하더라. 사람이 그리스도 하는데, 말이 그리스도지, 답이 안 났다. 사람이 물질 앞에서 이상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희 목사가 말했다.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내 주위에 눈 밝은 사람이 많다. (웃음) 진짜 다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아니, 교회 현금을 도둑질하거나 선교 현금을 도둑질하면 자손 대대로 영적문제 온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 흑시 사역을 하다가 교회 돈을 속이지 마라. 다시 이야기하는데, 우습게 생각하는데 큰일 난다. 하기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필요없는 이야기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라.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기를 어떻게 받았나? 교회 일은 내 돈을 쓴다. 어쩌다가 교회 일 심부름을 해야 하면 내 돈을 쓴다. 그래서 나는 팬찮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돈을 써야 하는가.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막 대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건드렸느냐. 그 뒤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났다. 그리스도로 답 내 버리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끝난 것이다. 그것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다. 끝나 버린 것이다. 왜냐,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왕 받지 않도록 끝내 버린 것이다. 아예 여러분의 원칙, 본적보다 더 깊은 원적인 지옥 배경을 꺾어 버린 것이다. 엄청나지 않나. 답 내 버려야 한다. 이 답을 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인다.

(2)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이겨놓은 싸움이다. 그 말은, 부활메시지를 자세히 보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고 했다. “성령충만 받으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3) 세 번째. 무엇인가? 세 번째 결론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이 아니다. 과감하게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 아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문제 아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 야기가 때문이다. 성경이 증거했다. 여러분, 바울이 죽음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승리시켰다. 지금부터 내리는 세 번째 결론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한 가지만 누려라. 무엇인가?

① 모든 교역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라. 부산에,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 신경 쓰면 된다. 교역자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라. 오늘 잠깐 교역자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다. “앞으로 지역 지역에, 시대적 전도자가 일어나야 한다. 정말 지역 살리는 대표적 전도자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른 것이다. 전도만 하는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은, 배설물에 신경 안 쓰는 전도자. 성공되어도 변하지 않는 전도자. 성공되면 사람이 변한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인기가 생기면 그것을 못 놓는다. 돈보다 무섭다. 전도자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교역자는

모든 지역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것 하나만 계속 생각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도 그렇고, 예원교회에도 그렇고, 이야기했다. “10만 제자 일으켜라. 그래서 힘을 모아야 수도권에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면 전도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 기도를 계속 하면 증직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② 증직자들이다. 이것 하나만 기도하라. 3제자.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숨겨져 있는 비밀결사대. 모든 증직자들은 램넌트 키울 램넌트 미니스트리다. 모든 증직자들은 곳곳에 성전과 RUTC 세우고 문화를 바꿀 홀리메이슨들이다. 3제자.

③ 램넌트들이다. 3서밋이다. 서밋이라는 말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내일 설명하겠다. 내일 원단의 메시지 1장이 치유, 2장이 서밋이다. 이 두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 램넌트는 세 가지 서밋으로 가야 한다. 순서, 내용은 내일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있었는데,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면 제대로 본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보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면, 내가 보조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로 해야 할 일이 분간된다.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나가, 내가 주로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이 있고 가볍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분간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뭘 하냐, 40년 동안 전도만 생각했다. 그랬는데,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알고 봤더니 모든 게 다 들어있었다.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여야 제대로 예술을 한 것이다. 그렇지 않나. 운동하는 사람이, 선수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여야 제대로 선수가 된 것이다. 여러분들 증직자들은 진짜 기도하라. ‘나는 3제자 중에서 비밀결사대로, 홀리메이슨으로, 램넌트 미니스트리로 갈 것이다.’ 밤 24시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가지만 언약을 집중적으로 붙잡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는가? 안 와도 팬찮다. 오게 되어 있다. 내가 기도 안 한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나. ‘아버지,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했는데 아버지가 잘 안 준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다.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갖다주는 아들이 있다. 그것은 제대로 된 아들이다.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 언약만 붙잡고 결단했는데, 모든 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가이오가 어디 있느냐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을 끌고 들어가셨다. 확실하다. 브리스가 부부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어디 있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것이다. 이 눈이 열른 보면 안 보이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보인다. 한때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다 열었다. 그레놓고는 복음을 심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길을 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라. 그것을 모르는 로마는 교만해서, ‘로마는 하루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하고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대영 제국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심었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독일에 많은 기능을 심었다. 거기에 복음을 심으셨다. 하나님은 미국을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들었다. 거기에 복음을 전달한 것이다. 그 복음이 세계로 나간 것이다.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한국이라면 기본이 좋으실 것이다. (웃음) 아니다. 다민족이다. 그 언약 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신나게 음약을 하고 있다. 가 보니까 아니다. 엿장사였다. 나는 엿장사가 그렇게 음약을 잘 하는 것을 처음 봤다. 나만 아니고, 길 가는 사람이 다 혼이 빼앗길 정도로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잘 한다. 이 사람이 엿이 문제가 아니다. 완전히 빠졌다. ‘야, 엿장사도 저렇게 하는구나.’ 또 전도를 생각했다. ‘전도하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오직.’ 끝이다.

여러분, 승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 언약만 딱 붙잡아라. 그러면, “문제가 온다.” 아니다. 세 가지를 찾아라. “위기가 왔다.” 아니다. 세 가지를 찾아라.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생겨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열 사람을 축복하자.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름 받은 것은, 또 하나가 남아있다. “우리는 237개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말한 것은 뇌에 전부 각인된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은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말 각인시켜서 병 고친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고백을 하고, 메시지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옛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소리질렀다.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화하는데, 전도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정말 시대 살리는 주역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결단의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단하게 되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